

TV 1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00 KBS 뉴스광장 30 생방송 세상의 아침 1~2부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스페셜 30 생방송 세상의 아침 1~2부	6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출발! 모닝와이드 1~2부
50 TV 소설 <장춘애전>		7 1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하얀 거짓말>	05 KBC 뉴스지금 30 출발! 모닝와이드 3부
25 아침마당	00 KBS 8 아침 뉴스타임	8 30 특집 다큐 <아시아 앤 더 시티> (뽀빠이&도아마)	30 아침 연속극 <순결한 당신>
30 KBS 뉴스	00 아침드라마 <아내와 여자> 30 남희석, 최원정의 여유민만	9 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날	05 좋은아침 플러스 원 30 이재홍 정은이의 좋은아침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TV동화 행복한 세상 55 아름다운 정원	40 지구촌 뉴스	10	40 SBS 뉴스
55 바른말 고운말	00 스포츠 2.0(재)	11 00 일일연속극 <사랑해 울지마>(재)	00 KBC 정책대담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듣는다
00 KBS 뉴스 12	10 KBS 네트워크 - 대전	12 00 MBC 뉴스와 경제 40 놀리와 스페셜	00 뉴스와 생활경제 10 KBC 생활뉴스 30 내마음의 크레파스 스페셜
00 KBS 걸작선 <임파기 불났다>(재)	00 인강극장 스페셜 <미션 블루>(재) 30 안코르 일일연속극 <미우나 고우나>(재)	1 50 MBC 스포츠 제4회 3-15기년 전국태권도대회	30 절먹고 질서는법 스페셜
00 KBS 뉴스 10 체력, 삶의 현장(재)	10 일일연속극 <집으로 가는 길>(재) 50 2TV 스페셜 <소버지 고발>(재)	2	00 SBS 뉴스 10 드라마 스페셜 <정관의 지>
10 환경스페셜(재) 55 새천년 건강체조		3 10 스포츠 매거진(재)	00 건강 클리닉
00 KBS 오늘의 경제 10 사람의 가족 30 삼국지전	00 꼬꼬미 꿈동산 25 이주일의 동료 30 개구쟁이 음악회	4 00 뽀뽀뽀 아이즈 30 M-3 특공대	00 아가공룡 돌리 30 UCC 과학탐험대
00 KBS 뉴스 5 15 동물의 세계 40 남도지오그래피	00 TV유치원 파니파니 30 활력충전 530	5 00 MBC 뉴스 20 우리집 주치의 365 35 생방송 전국시대	00 SBS 뉴스레이드 15 KBC 저널리스트 30 사투리쇼 얼룩말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클럽 우리사는 세상 00 KBS 뉴스네트워크 30 정점토론	10 생방송 무한지대	6 00 MBC 뉴스 50 신나 후	25 생방송! KBC 투데이
25 일일연속극 <집으로 가는 길>	20 인강극장 <우렁각시가 간다>	7 45 일일시트콤 <태희 해고 지원이>	05 시사타지 따따따 15 일일 드라마 <아내의 유혹>
00 KBS 뉴스 9	55 수목드라마 <미워도 다시 한번 2009>	8 15 일일연속극 <사랑해, 울지마>	00 SBS 8 뉴스 25 KBC 8시 뉴스 45 SBS 스포츠 뉴스 5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00 생로병사의 비밀 50 다투니		9 00 MBC 뉴스데스크 55 MBC 스포츠뉴스 50 수목미니시리즈 <돌아온 일지매>	55 드라마 스페셜 <카인과 아벨>
00 KBS 뉴스라인 30 현정르포 동행	05 해피 투게더	10	05 세계 물의 날 특집 SBS 다문화뉴스 세상을 바꾸는 힘 빛물
15 KBS 뉴스 25 스포츠 스포츠 35 걸작다큐 <중국의 현대미술가들 -새로운 시각의 탄생>	15 생방송 시사 360 45 영상포럼 내마음의 여행(재)	11 05 분간제로	05 세계 물의 날 특집 SBS 다문화뉴스 세상을 바꾸는 힘 빛물
		12 00 MBC 뉴스24 10 MBC 100분 토론	05 나이트 라인 35 스포츠 중계석



<서세원>

## 서세원, 유장호씨 만난 까닭은?

<故 장자연 전 매니저>

### “리스트” 거명인사 부탁받고 방문” 논란

고(故) 장자연의 자살에 얽힌 의혹을 제기한 전 매니저 유장호(호야스포테인먼트 대표) 씨가 18일 기자회견을 자처했다. 하지만 유씨는 6분여만에 회견을 마치고 서둘러 회견장을 빠져나가 장씨의 자살을 둘러싼 의혹만 증폭되고 있다. 또 개그맨 서세원 씨가 전날 밤 유씨가 임원인 병실로 찾아가 40여분간 면담한 것이 알려지면서 ‘어떤 말이 오고갔는지’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장씨가 남긴 유서를 건네 받은 것으로 알려진 유씨는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을 둘러싼 갖가지 의

혹들에 대해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다. 유씨는 또 “서씨와는 알지 못하는 사이다. 병문안을 와서 처음 봤다”는 말로 서씨와 평소 친분이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들을 보니 서씨가 마치 내 기자회견에 압력을 가한 것처럼 나왔는데 오늘 기자회견에서 말하는 내용은 100% 내 심정이며 그 누구에게도 내 판단을 맡기지 않는다”며 서씨의 병문안이 자신에게 영향을 주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유씨는 그러나 “일면식도 없는 서씨가 왜 병문안을 왔나”, “서씨가 왜 기자회견에 압력을 가했

나”, “서씨가 리스트에 있는 인물과 관련이 있는가” 등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고 황급히 기자회견장을 빠져나갔다. 한편 일부 언론에 따르면 서씨는 17일 자정을 넘어 일찍 3명과 함께 유씨의 병실로 찾아가 기자회견에 대한 말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예계에서는 서씨가 취재진이 유씨의 병실 앞에 진을 친 것을 아는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병실을 찾아가는 것에 대해 의아해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서씨가 장자연 리스트에 거명된 유력인사의 부탁을 받고 유씨를 만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연필뉴스>



<유장호>

### 제5회 서구청장배 바둑대회

최대의 승부처  
최강부 결승전 5보 (72~89)

白 선계성 6단    黑 임상빈 6단

중원의 주도권을 놓고 치열하게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 장면이다. 백 72의 물러섬에 흑 73으로 끼워간 것은 최강의 압박으로 백의 엇음을 최대한으로 추궁하고 있다. 결국 흑 72까지 좌변에 뿌리를 내려 임상빈 6단이 소기의 성과를 얻어낸 것처럼 보인다. 다음 한 수가 본국 최대의 분수령인데 선계성 6단은 백 80으로 최강의 한 수를

던진다. 이곳은 탐나는 곳이기도 하지만 중앙의 백이 없어서 잡되면 중신이지만 못되면 역적이 되는 모험의 한 수이기도 하다. 이 수로는 ‘참고도’의 백 1로 두고 3까지 중앙을 정비한 다음 5로 지키는 것이 무난했으며 긴 바둑이었다. 임상빈 6단이 흑 81을 선수하고 83으로 붙어간 것이 강력한 반발로 이제는 백 대마의 수습이 승부의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선계성 6단은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88까지 차분히 받아주었으나 흑 89로 강력하게 붙어오자 이곳이 최대의 승부처임을 인식한 듯 한없이 장고에 빠져든다. <규정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19일(음 2월 23일 癸亥)

子	36년생 순풍과 역풍 조심해야 하리라. 48년생 세 번 생각하고 행동하면 오욕은 없으리라. 60년생 새로운 직업과 인연이 생기니 조심 잊지 마라. 72년생 새로운 인연은 있으나 기대는 거두어라. 84년생 일손을 놓고 가족을 살펴보라. 행운의 숫자: 11, 41
丑	37년생 아내의 건강을 살펴보라. 49년생 뜻밖의 기쁨이 오니 기회를 잡으라. 61년생 다시 한번 도전의 기회가 보이니 놓치지 않는 말라. 73년생 남의 말을 경청하라. 85년생 구실이 따르고 신체의 불량이 발생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20, 38
寅	38년생 고생은 있으나 좋은 날이 된다. 50년생 각별히 건강에 유의해야 뒷날이 없으리라. 62년생 혼자서 노는 것이 재미가 없다 이웃과 정을 나누라. 74년생 초췌한 불면증은 불면하니 살펴서 행운하라. 행운의 숫자: 12, 30
卯	39년생 처가나 시가 편에 경사가 생길 수 있다. 51년생 지인의 협조가 있다. 63년생 주변이 산만하고 어지러우니 수양하는 지내라. 75년생 주변의 이성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22, 34
辰	40년생 정신이 혼미하니 심상의 안정을 취하라. 52년생 재물이 사방에 있으나 내 것은 적다. 64년생 재물의 손실, 사기, 실물을 조심하라. 76년생 자신 있게 추진하면 귀신도 피해간다. 행운의 숫자: 21, 32
巳	41년생 자기 입을 조심하라 쌓아놓은 공로가 무너질까 걱정이 다. 53년생 일 거수 일 무족을 조심하라. 65년생 외로 재물이야 한다. 68년생 학문의 발전이 있다. 77년생 순풍에 당하여 대비는 해야 하리라. 행운의 숫자: 18, 35
午	42년생 불연이면 천지로부터 파멸을 당한다. 54년생 불만과 불평은 본인의 잘못이다. 66년생 부부의 애정이 소폭소폭 살아난다. 78년생 부부간의 언쟁을 현명하게 넘겨라. 불연이면 극한 상황도 예상 못한다. 행운의 숫자: 14, 28
未	43년생 많은 갈등이 따르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55년생 뜻밖의 협조가 있어 결과가 기대 이상이다. 67년생 또 다른 성공의 기쁨이 마련된다. 79년생 기력이 쇠하니 폐와 장을 살펴보라. 행운의 숫자: 24, 44
申	44년생 금전 사기 대소비가 있을 수도 있고 직업 변경도 우려된다. 56년생 하는 일마다 불만만 인연이 따를 수가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 68년생 학문의 발전이 있다. 80년생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생길 수 있다. 행운의 숫자: 16, 17
酉	45년생 절대 주변 사람과 신사나 동업은 신뢰로써 진행하라. 57년생 재물과 처 사이에 중정의 마음을 가져라. 69년생 일손일팔을 날리지 않아야 신심하지는 마라. 81년생 외의 이성을 만났을 수 있다. 행운의 숫자: 01, 43
戌	46년생 의심스런 인연을 만나니 생각하며 행하라. 58년생 어부지리는 있으나 새로운 일이 생길 수 있으나 신중하게 결정하라. 70년생 안장목책을 하나 잡지는 않다. 82년생 신음이 무너지면 절박으로 추락한다. 행운의 숫자: 02, 31
亥	47년생 식구들과 떨어져 지낼 수도 예사가 발생할 수도 있으나 주변을 살펴봐라. 59년생 순후에 황해하는 것이다. 71년생 서투로 인해 불만이 있으리라. 83년생 생활의 무리함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변화를 가져라. 행운의 숫자: 23, 42

www.cafe.daum.net/sajou114 ☎011-632-6121

EBS	
06:00 열부! 한국어쇼	09:45 뽀뽀뽀 나라, 코코몽
06:30 세계테마기행 <빅재동 화백의 아사시 그리스>	11:00 최고의 요리비결 <여경옥의 집에서 즐기는 일품중국요리>
07:10 헬로 부부동	11:30 디큐 프라이빗 월드풀 사이언스 <침팬지 떼우다, LNG선>
07:25 슈퍼아이	12:20 EBS스페이스 공감
07:50 최치복 특채 토크쇼	13:10 토크! 영아놀이터
08:00 댄서들 유치원	13:30 미비의 신나는 지구여행
08:20 안녕! 루퍼드	13:50 부와락 코알라
08:30 뽀뽀에 친구	14:00 천사랑
08:40 하하하의 상상 놀이터	14:20 작은 녀석들
09:00 로켓보이	14:30 두벌레발 반야드
09:15 방귀대장 뽀뽀이	
09:30 뽀로로와 노래해요	
09:35 아무아무 참참	

  

EBS플러스1	EBS플러스2
07:00 EBS 포스 <수학>	15:20 EBS 토크(재) <윤리>
07:50 EBS 기본과 특별한 <수학>(재)	16:10 <지구과학 1>
08:40 <수학>(재)	17:00 EBS 수능특강 선택-고3(재) <윤리>
09:30 EBS 학습자료실 <과학>	17:50 EBS 학습자료실 <과학사>
10:30 EBS 내신6급 <수학>(재)	18:00 EBS 포스(재) <현대문학>
12:50 <수학>(재)	19:00 <수학>(재)
13:40 EBS 기본과 특별한 <수학>(재)	20:00 EBS 수능특강 선택-고3(재) <지구과학 1>
14:30 <수학>(재)	21:00 EBS 내신 6급 <생물>
	21:50 EBS 수능특강(재) <지구과학 1>
	22:00 EBS 수능특강 선택-고3(재) <외국어영역>
	23:00 EBS 학습자료실 <세계사>
	08:00 EBS TV 중학 1학년 <영어> <과학>
	08:40 <과학>
	09:20 EBS 중학 1학년 <과학> <과학>
	10:00 방귀대장 뽀뽀이
	10:15 댄서들 유치원
	10:35 일품중국 요리
	10:50 달려라 도리리
	11:00 일일드라마 <광순이>
	12:00 EBS TV 중학 2학년 <영어> <과학>
	12:40 <과학>
	13:20 EBS 중학 2학년 <과학> <과학>
	14:00 중학영어특례 level 2
	14:40 댄서들 유치원(재)
	15:00 퀴즈장사 만민세
	15:30 2009 중등중개사 시험대비강좌-이론편(재)
	16:00 독학사 교육강좌(재)
	16:30 열부! 한국어쇼
	17:00 EBS 초등 친절한 선생님 <과학 3-1>
	17:30 <과학 4-1>
	18:00 <과학 5-1>
	18:30 <과학 6-1>
	19:00 EBS TV 중학 1학년 <영어>
	19:40 <과학>
	20:20 EBS 중학 1학년 <과학> <과학>

굿모닝 잉글리쉬 <1272>	오하오우 니혼고 <1272>	니하오 중국어 <349>	한자 이야기 <989>
<p>I really need to think about it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p> <p>A: So, shall we wrap this one up for you? B: I don't think so. I really need to think about it for a few days. A: You're aware that this sale ends today? I can't hold it for you at this price after tonight. B: I may just have to wait until it's on sale again.</p> <p>A: 그러면, 제가 이것을 포장할까요? B: 잠깐만요, 며칠 동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A: 아시잖습니까? 이 세일은 오늘 끝난다는 것ですよ. 오늘 밤 이후로는 손님을 위해 이 가격으로 이 물건을 보낼 수는 없 습니다. B: 저는 그냥 기다릴 수 있거든요, 다시 세일이 시작될 때까지 요.</p> <p>* wrap up : 싸다 * think about it : 숙고하다 * on sale : 할인 판매하는 * just have to ~ : 그냥 ~하다</p>	<p>恥ずかしがりやですね. 勇氣を出して. 부끄럼쟁이구나. 용기를 내.</p> <p>A: 木村君 好きでしょう? 告白したの? B: もう - 恥ずかしくて... A: あなた, 恥ずかしがりやですね. 勇氣を出して.</p> <p>A: 기뻐라구 좋아하지? 고백했어? B: 어떻게 - 부끄러워-</p> <p>A: 너, 부끄럼쟁이구나. 용기를 내. 恥ずかしがりや: 부끄럼을 타는 사람</p>	<p>你不要客气 사랑하지 마세요</p> <p>A: 你不要客气。 (你不要客气, 你不要客气) B: 你不要客气。 (你不要客气, 你不要客气)</p> <p>A: 你不要客气。 (你不要客气, 你不要客气) B: 你不要客气。 (你不要客气, 你不要客气)</p>	<p>臨淵掘井 (임갈굴정) 임할 립, 목마를 갈, 팔 굴, 우물 정</p> <p>임갈굴정(臨淵掘井)은 목이 말라야 비로소 우물을 판다는 뜻으로, 미리 준비(準備)함이 없다가 일을 당한 뒤에야 허둥지둥 애쓰지만 소용(所用)없음을 비유한다. 또는 자기(自己) 일이 급해야 일을 서두르는 경우이다.</p> <p>춘추시대 노(魯)나라 소공(昭公)이 제(齊)나라로 도망쳐 물을 기탁하자, 제(齊)나라 경공(景公)은 안자(晏子)로 하여금 소공을 도와 귀국할 수 있게 해주라고 하였다. 하지만 안자가 말하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무릇 어리서는 자는 후회가 많고, 불초한 자는 스스로 현명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물에 빠진 사람은 수로(水路)를 살피지 않았기 때문이며, 길을 잃은 사람은 길을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에 빠지고서야 수로를 찾고, 길을 잃고서야 길을 묻는 것은 환난(患難)을 당해서야 급히 무기(兵器)를 만들고, 음식을 먹다가 목이 마라서야 물을 마시기 위하여 급히 우물을 파는 것과 같으니, 제야무리 가장 빠른 방법으로 한다고 하여도 이미 때는 늦은 것입니다.”라고 말하면 서 거절하였다. (晏子春秋, 內篇, 雜上)</p> <p>‘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는 말이 있다. 그 목마름을 적서줄 물 한잔을 나눠준다면, 아마도 많은 사람이 먹고도 남을 우물을 마련하지 않을까?</p>
<p>&lt;동아 외국어학원 제공&gt; www.donga.tv ☎ 222-6253</p>	<p>&lt;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gt; http://kglobal.wo.to ☎ 228-2545</p>	<p>&lt;리틀차이나 중국어 전문학원&gt; www.littlechina.co.kr ☎ 233-9582</p>	<p>&lt;한예원(韓藝媛)&gt;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7353</p>